

나주시, 내년 예산안 1조107억...“민생·지방소멸 극복”

전년비 7.6% ↑...신바람 활력 프로젝트 등 경제 활성화 중심 윤병태 시장 “예산강 정원처럼 실질적 발전·성과 이루겠다”

나주시가 ‘민생안정’, ‘지방소멸 극복’,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초점을 둔 2025년도 1조107억원 규모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본예산 최종 통과를 위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천281억원, 특별회계 889억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9천306억원과 비교해 711억원(7.6%)이 증가했다. 예산은 늘었지만 사용처가 특정된 국·도비 증가로 수치상 규모가 커진 반면 가용재원은 올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최근 2년간 약 800억원이 감소한데

다 자체 수입 징수 또한 경기 침체 등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주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 완성에 집중하며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민생안정 분야 예산안에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소상공인·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13억원), 100세 안심경로당 운영(2억원), 5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1억원), 동부·중부·나주노인복지관 운영(24억원) 등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지역 사회 노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두루 편성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20일 나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본예산 최종 통과를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나주시 제공>

명절 전통시장 10%페이백 이벤트(1억원), 영산포 상권 활성화 지원(8억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7천만원) 등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 예산도 책정했다.

아울러 나주시는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내년부터 ‘나주형 신바람 활력 프로젝트’ 추진한다.

먼저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에 5억

원을 편성, 학생들의 통학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내년도 우수 신규시책으로 선정해 무료 결혼식장 대여와 미용, 웨딩 촬영 등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 작은 결혼식’(4천만원) 사업도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관광’, ‘에너지’, ‘농생명’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나주시는 올해 관광객 30만명을 기록한 ‘2025년 나주영산강축제’를 비롯해 영산강 지방정원, 웨이크 파크 및 수변생태 키즈놀이터 조성에 29억원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 준비에 나선다.

윤병태 시장은 “민선 8기는 출범 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시민, 시의회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수많은 계획을 세웠고 현실로 이뤄왔다”며 “올해 시민들이 선보인 영산강 정원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실질적인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 2025년 본예산안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1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나주=정준환 기자

목포시·시의회, 화장장 민간 운영 갈등 심화

대립 지속 합의점 도출 여부 관심 집중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 운영 위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

시의회는 화장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영 전환을 촉구하며,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성우 목포시의회 의장은 “일부에서 직영 전환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 문제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화장장 운

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운영 연장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민간 위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추모공원 민간위탁 운영 중단 위기에 따른 비상체계 운영 등 대책을 발표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전날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인해 화장장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민간위탁이 중단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화장장의 공공성 논의는 충분히 이해하나, 갑작스러운 직영 전환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목포시는 향후 직영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연장이나 비상체제를 통해 화장장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대립이 지속되면서 향후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스피드와 열정의 향연’ 영암 모터피아 축제 막오른다

내일부터 이틀간 영암F1경주장서 록·트롯 등 다양한 음악·스포츠 축제

영암군이 ‘2024 영암 모터피아 축제’를 통해 지역 관광과 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한다.

21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2024영암모터피아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4월 문화부의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된 영암군은, ‘영암 모터피아’를 구호로 F1경주장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로 관광스포츠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먹거리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연장선인 ‘2024 영암 모터피아 축제’는 1공연인 ‘모터뮤지컬페스타’, 2대회인 ‘전국 대학생 포물리 자작 자동차대회’, ‘전국 듀에슬론대회’로 구성돼 있다. 모터뮤지컬페스타는 23일 F1



전국 대학생 포물리 자작 자동차대회. <영암군 제공>

경주장 상설트랙 메인무대에서 진행되는, 오후 5시30분부터 마미손, 키디비, 소잔휘, 김희재, 강혜원, 박세욱 등 합합, 록, 트롯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전국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23-24일 상설트랙에서 진행된다. 대학생들이 설계·제작한 포물리 자동차의 성능을 겨루는 이 대회에서는, 공인 레이스

코스 테스트 기회 제공 등으로 다른 지역 대회와 차별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명선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장은 “영암 모터피아의 이름을 걸고, 다양한 스포츠 대회와 행사로 영암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며 “스피드 도시 영암을 알릴 다양한 프로그램을 F1경주장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완도 ‘정원 페스티벌’ 성료...44만명 다녀갔다

해변공원 화단 리모델링 작품 전시 지역 활력 제고 관광 활성화 호평

완도군이 2년 연속 유치한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약 44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변 정원, 완도 테라스’를 주제로 청정바다를 앞마당에서 바라보는 정원 콘셉트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주목 받았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기존 해변공원 화단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 ‘난대림 속에서 차 한잔을 마시며 쉬어가는 치유’를 주제로 한 ‘트리 티 하우스’, ‘작가 정원’, ‘아기자기한 나만의 집’ ‘타이니 하우스’ 등을 찾은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등 지역의 행사와 연계함



장보고공원에 재배치된 ‘타이니 하우스’. <완도군 제공>

으로써 지역 활력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완도군은 페스티벌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작품 재배치를 염두하고 계획 단계부터 작품을 이동 및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작·설치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년 연속 개최된 정원 페스티벌을 통해 군민 일상에 쉽고 힐링을 주는 정원문화가 자리 잡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완도만의 아름다운 정원 공간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강진군, 강진읍 취수장 여과수 개발 ‘탄력’

사업비 118억 확보...수질 개선·안정적 용수 공급 기대

강진군이 내년 신규사업인 ‘강진읍 취수장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선정, 도비 8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8억원을 확보했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변여과수는 하천 표류수가 강변 하부의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며 자연적으로 정화된 물로, 안정적인수질을 유지하고 정수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방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하천 표류수를 취하해

할 수 있으며, 돌발적인 수질 사고에도 안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주민의 생활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이달 내 전남도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양식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군, 선도적 정원정책 수립·방향 논의

정원문화진흥위 위촉식·1차 회의

신안군은 21일 “지난 19일 제2기 신안군 정원문화진흥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2024년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군정 방침인 ‘늘 푸른 생태환경의 아름다운 신안’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신안군 정원도시·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원문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했다.

위원회는 박석근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2년간 신안군 정원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1004점 정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 검토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출된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계획은 농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실시와 신안군 실정에 맞는 스마트 양묘시설 확충에 대한 자문 의견이 있었다.

기타 지방정원 변경 등록, 개인정원 등록, 경관농업·경관조립사업, 정원해설사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건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위원회의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선도적인 정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세계 최대 섬 정원 조성을 목표로 14개 읍·면 36개소에 정원과 숲길을 조성하고 있다. /신안=양홍자 기자

무안군, 쌀 가공 전문인력 양성...‘떡 제조 기능사’ 교육 성료

무안군은 21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떡 제조 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떡 관련 제조업 종사자와 떡에 관심이 많은 군민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이론과 시연 및 실습으로 구성됐고, 떡 제조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해 2차례의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등 모든 참여자가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무안군은 전문 자격증 취득 후 전문가로서 능력을 개발하며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항남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 모두가 예습해 고 집에서 직접 떡을 만들어 보는 등 열의와 협력 의지가 강하다”며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을 앞장서며 취·창업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